



1년을 달려온 길, 10년을 달려갈 이유

디아스포라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이한다. 이주민 선교 시대에 즈음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자청하여 12개월을 보낸 것이다. 창간호에는 한국 선교계가 지난 30년간 이주민 선교에 도전하고 성도의 참여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밀려오는 인파에 과연 교회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호는 이주민 선교의 연합을 다루었다. 그동안 교단 선교부 또는 지역교회의 지원 주축에 이루어진 선교파송의 사역결과가 연합이 아닌 경쟁으로 치닫고, 도리어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하게 된 과정을 짚어보며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선교적 소양의 결여가 선교 연합의 길을 걷는 데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선교의 '연합'은 선교 그 자체와 더불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상기시켰다.

이어진 세 번째 호에서는 이주민 선교의 핵심인 '환대'를 다루었다. 낯선 이, 곧 타자를 환대하는 일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다는 점에서 선한 일이다. 이주민에게 '환대'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이다. 지역교회의 환대는 이주민이 삶을 재건하고 새로운 땅에서 터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힘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네 번째 호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동안 난민 문제를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서 발생한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더이상 난민은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2018년 이듬마저 생소한 국가였던 예멘 사람들이 제주로 상륙하면서 '난민'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고, 지금은 로힝야, 카렌,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다섯번째 호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누리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연말에 발행된 여섯 번째 호는 "죽음을 알면 이웃들이 보인다"라는 주제

로 이주민의 축제문화 이야기를 담아냈다. 새해에 발행된 일곱 번째 호에는 주현절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고 도전하였다. 여덟 번째 호는 어린이 이주의 배경과 상황을 다루었다. '교육'은 아동 인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주의 배경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비롯되었을지 몰라도, 이주한 환경에서 모든 어린이는 기회와 기대와 희망을 누려야 한다. 이는 곧 이주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결부되는 지점이며, 관련 설명과 칼럼을 지면에 담아냈다.

예배와 노동, 선교와 사업, 그 성숙(聖俗)의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는 이주민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선교계에 주요한 흐름 중 하나인 BAM(Business as Mission)과 디아스포라의 연계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논의가 아홉 번째 호에 담겼다. 열 번째 호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잠정적으로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된 이주 난민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에 대해 다루었다. NGO의 다양한 사역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총체적 선교'와 그 중요성을 깊이 탐구하였다.

열한 번째 호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발행되어 우리 사회 안에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다루었다. 다문화 가정은 선교 자체의 전략적인 통로이자 에너지이다. 다문화 가정은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부터 선교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롯과 보아스가 이룬 다문화 가정, 그리고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룬 이주민 가정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발행된 열두 번째 호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에티오피아·태국·필리핀 참전용사를 기리며 네 나라의 이주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혜국에 보은과 감사를 전해야 하는 공여국의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본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명사들의 축하를 올리고, 이주민 선교 현실을 돌아봄으로 미래의 선교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도시선교 플랫폼

도시에서 세계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가 가능하다



글 오영섭 목사

오영섭 목사(Rev. David Oh)는 열방의 도시 세대에 초점을 두고, 모든 민족 모든 세대·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랜드마커 미니스트리'를 설립(2005), 다민족·다문화·다언어 사역을 위한 선교적 국제교회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를 서울의 캠퍼스타운에 개척(2014), 다민족을 위한 '다문화선교협의회' 공동 설립(2015), 전 세계 러시아어권 공동체를 위한 'RUSTA'를 공동 설립(2016)하며, '아릴락 도시선교연구소' 소장으로 도시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복음의 정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적절하게 해석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야만 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복음 대부분의 교회성장은 도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이익 단체가 도시화와 그에 따른 긍정적 영향력을 인지하여 도시로 침투하는 반면, 교회는 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열방과 미전도종족 지역의 영혼들은 본국의 도시를 넘어서 열방의 대도시로 홍수와 같이 밀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고 목말라 있다. 지금 도시의 중심에서 이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구체사역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도시화'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다이내믹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만 한다. 도시선교를 통하여 세계선교와 미전도종족 선교, 그리고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선교사들은 땅끝으로 여행해야만 했다.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문화권에 들어가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대도시(Megacities, 뉴욕·시카고·런던·도쿄·서울·시드니·모스크바 등) 어디를 가든지 세계 주요 종교, 인종, 언어,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미전도종족이 전 세계 대도시로 유입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물이 되었던 지리적·문화적·언어적·관계적 격차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도시 속 문화와 언어를 생존과 성공을 위해 기꺼이 배운다. 열린 태도로 소통하면서 관계의 장으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 도시화는 타문화권 선교를 넘어 열방선교와 미전도종족 선교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 제공한다.

2022년 세계 인구는 79억을 넘었다. 여기에 2억8천1백만 명이 국제 이주민들(3.6%)이며, 약 32억이 넘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다. 오늘날 이주민 선교 시대에는 선교적 교회운동과 다문화 교회운동이 만나 선교적 다문화 교회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운동의 중심에 '도시 선교'가 있다. 이주민선교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선교동력은 '국제유학생'들이다. 이때 도시선교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는 도시 환경 속에서 열방의 영혼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은사와 자원을 발견하여 세계선교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 복음전도와 선교사역을 위한 타문화 이해, 언어 숙달, 지리적 접근권, 미전도종족 및 본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킹 등 선교사역에 필수적인 자원이 이미 도시 속 이주민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예컨대 태평양 아시아 섬 주민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호감을 받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대인과 몽골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아랍인들에게 나아갈 때 효과적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발트 제국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환대를 받으며, 아시아인 인도인들은 다양한 아프리카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훌륭한 선교 역할을 하곤 한다. 이는 문화권마다 호감의 문화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다양한 민족들 간의 관계적 이해를 통해 전략적 역파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각 민족과 나라는 그들 고유의 민족적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이러한 열방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선교현장 가운데 발견되고 사용되지 않는 이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온전히 완수되기란 어렵다. 지상대명령은 결코 일부 민족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없다. 모두가 모두에게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전도종족 중 도시로 유입된 자들은 미전도종족에게 나아가는 길의 높은 장벽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견고하게 닫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손에 이미 예비된 자들이다. 이것이 도시선교이다.

'도시 선교'라는 용어는 1935년 런던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주로 도시의 사회적 약자와 빈민계층을 위한 긍휼사역을 겸하여 복음전도와 도시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는 오늘날 새롭게 변모하였다. 오늘날의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되어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추구를 위하여 정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점선교와 관문선교로 변화되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 신학교 선교	4면
창간 1주년 축하	5면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6면
[이주민 대담] 아프가니스탄 화가 하니프 씨	8·9면
국제이주자선교포럼 개최	11면
[특별기고] 신문 1주년 기념에 부쳐	12·13면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루이스 부시 박사가 본 新 실크로드와 디아스포라 선교

"중아시아 사람들의 한국 유입은 실크로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좋은 기회"

루이스 부시(Luis Bush) 박사는 그동안 '10/40 창'(북위 10~40도에 위치한 미전도 지역 북음화), '4/14 창'(4~14세 연령층 북음화) 등 세계 선교계에 특별한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월 30일 새빛교회에서 열린 '실크로드 포럼'을 통해 '35/45 창(Window)'이라는 실크로드 창을 제시하고 인구 1억 4500만여 명의 영혼구령에 대해 강조했다.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인 실크로드 창 지역의 국가는 선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교회 성장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선교의 문이 빠르게 열리면서 실크로드 지역에 난민, 아동 및 청소년 사역을 집중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루이스 부시 박사를 만나 디아스포라 이슈와 세계선교의 흐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실크로드와 세계선교에 대해 설명해달라.

유라시아 경제와 문화 교류의 역사적 경로인 '실크로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약 2000년 전 동서 무역의 경로 설명을 위해 '실크로드'란 용어가 탄생한 이래로 실크로드가 무엇인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여전히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고, 실크로드는 여전히 활발한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다. 만약 실크로드를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와 미래의 선교를 위한 길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 대상의 선교 전략인 10/40 창 안에 좀 더 집중된 전략인 실크로드 35/45 창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나라 대부분은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다. 아시아



▲ 부시 박사(왼쪽)가 한국선교계에 각별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를 향한 광범위한 선교 동기는 '투르크 창'으로도 불리는 실크로드 창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게다가 이 지역은 30여 년간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이 부어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크로드 선교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다.

선교계가 집중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 세계 어디서든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역 성장이 어디서나 가능할 만큼 전 세계 이주민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의 이주민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한다. 노동자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성취를 목표로 한 디아스포라들은 중동지역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부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에는 난민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난민, 재난난민, 전쟁난민 등으로 난민의 이동량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10/40 창 출신인 미전도 종족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는 현시대에 디아스포라 선교는 공간과 지역을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선교이다.

과거 AD 2000년 선교운동에 관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단체들은 세계 북음화를 위한 노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복잡하거나 비싼 인프라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선교 전략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 부분에서도 디아스포라 이주민의 참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 유입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교사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실크로드 지역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한국 유입과 체류는 지역교회와 선교계가 실크로드 선교의 열매를 거둘 좋은 기회이다. 결국 35/45 창 실크로드 선교와 디아스포라 선교는 상호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유관하여 시너지를 내는 선교 모델을 더 소개해달라.

과거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하와이에서 노동자로 정착하였고, 지금은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왕성한 비즈니스를 행하며 선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는 BAM 선교(Business as Mission)는

한인들의 성실함과 잠재력으로 계속 발전하는 긍정적인 선교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750여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알고 있다. 결국 디아스포라와 BAM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국 내 이주민들도 취업을 넘어 개인 사업과 비즈니스를 통해 BAM 사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선교는 연계하고 연합할 때 열매의 가치가 훨씬 커진다. 특히 하나님은 난민을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난민의 발생과 이동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환대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통전적 선교가 필요하다.

디아스포라 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수용국 앞에서 작아지고 위축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이주민을 대변하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문서 선교를 넘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촉진하며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건승을 기원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의 기도사역과 한국에서의 연일 계속되는 일정까지도 선교의 열정으로 돌파해내는 루이스 부시 박사께 경의를 표한다.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여 선교의 미래를 그리는 그의 혜안이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정리 문창선)





Kalayaan Cyber Christian Network in partnership with Leadership International

TRAINER'S TRAINING

AND LAUNCHING OF OUR KALAYAAN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PROGRAM

JULY 21, 2022
(THURSDAY)

TIME:
2PM-5PM

VICTORIA VALLEY SUBD.
ANTIPOLO, RIZAL
#18 Sunbird Drive

For inquiries and concerns, kindly contact Bro. Dave Camuyong, or send us message

Kindly fill out this Google Form: <https://forms.gle/BdKm691vqAJ2b1na6>

- Training Centers
- Church Leaders Local Network
- Missionaries with Training for Pastors & Church Leaders
- Bible Schools

불문 ITA* : Institut Théologique Américain / 영문 ATI* :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첫 졸업생을 배출한 '불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신학교'* 파리 캠퍼스



Ph.D. 프랑스 침례교단
(FEEBF)
ITA/ATI Paris 교장

글

채희석 목사

왜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에 신학교 신교가 필요한가?

불어권 나라의 중주국 프랑스는 과거 아프리카의 20개가 넘는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역사가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이슬람이 주류인 북부 아프리카 구(舊)식민지에서 대규모 경제이민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하라 이남의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frique-Occidentale française, AOF) 및 적도 지역 아프리카 구(舊)식민지에서 경제이민 또는 난민 자격으로 프랑스에 이주하면서, 상당수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가 프랑스에 정착하게 된다.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의 일부 회교도 국가를 제외하면 이들은 주로 기독교 국가 출신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 이주한 아프리카 기독교 디아스포라는 파리를 위시한 대도시에서 수많은 이민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다.

원래 서부 아프리카는 개신교 신학교나 교회 체제가 매우 빈약한지라, 프랑스에 정착한 이들 중 기독교 디아스포라 목회자들 역시 거의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 이처럼 바람 불듯이 개신교 인구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목회자 사역 면에서 질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서부 아프리카에 '불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신학교'(ITA/ATI)라는 선교

단체가 2011년에 설립되었다. 신학교 이름에 '미국(American)'이 붙은 이유는 오랜 세월 미국에서 신학교육과 목회를 해왔던 한 신학자와 어느 목회자의 비전에서 선교 목적의 신학교 설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신학교의 국제회장, 학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신학교 추진 구성에서나 교육과정이 미국 남침례교 '게이트웨이 신학교'(Gateway Seminary)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들의 인력과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틀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신학교'(ITA/ATI)의 특징

ITA/ATI는 체계적인 신학교 자체가 없어 개신교 선교가 취약한 서부 아프리카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 설립된 신학교육을 수단으로 선교하는 단체이다. 즉 불어권 아프리카 교회에 △올바른 복음주의 신학정립 △신앙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 양성 △현지 목회자에 의한 교회개혁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결성된 신학선교단체이다. ITA/ATI가 다른 선교단체 및 신학교와 차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A/ATI는 미국신학교의 지성·한국선교목회자의 영성·프랑스 및 아프리카 교회의 경험과 인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최적의 선교 효과를 만들어 내는 선교단체이다. 둘째, ITA/ATI는 뛰어난 미국 신학교 현지 교수와 신학박사 십여 명을 교수진으로 갖추어, 과목마다 한두 명의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의 질과 가치를 보장하는 교육기관이다. 셋째, 아프리카(아비장 Abidjan, 다카르 Dakar) 및 프랑스(파리)에서 수십 년 사역했던 연륜 있

는 현지 선교사 목회자들이 △각 지역 신학교를 직접 운영 △현지 교회 및 목회자의 영적·문화적 필요성을 고려 △상호문화적 입장에서 현지 교회 및 목회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교훈련기관이다.

프랑스에 정착한 아프리카 기독교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위한 사역

아비장(2012), 다카르(2016)에 이어 파리에 ITA/ATI가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아프리카 선교 차원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는 파리에 '불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신학교'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는 파리 ITA/ATI의 교장으로, 파리대학 및 노장신학교·보쉬센신학교 등에서 오랜 세월 최고 학위를 공부하였다. 지난 38년간의 프랑스 현지인 대상 목회 경험과 수년간의 아프리카 ITA/ATI 원정 지원 경험을 토대로, 불어권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 교육에 헌신하고자 파리 근교 아르케이까상(Arcueil-Cachan)에 세워진 침례교회 건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 지역에만 디아스포라 교회가 400여 개로 추정되기에,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프리카 목회자에게 3년 학위과정 교육을 제공하며 지난 5년간 교장으로서 사역해왔다.

첫 수업을 시작한 지 5년만인 2022년 5월 14일, 20여 명의 재학생 중 3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원래 ITA/ATI는 3년 과정(60학점)을 이수하면 목회사역(Christian Ministry) 학위를 수여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사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zoom)을 통해 인터넷 신학강좌를

혁신적으로 운영하면서 꾸준히 신학교육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파리 ITA/ATI의 첫 졸업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졸업식 장소는 1830년대 파리 개신교 영적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테부 예배당'(Chapelle TAITBOUT, 현재 한인침례교회 소유, 이상구 목사)이었다. 이날 신학생들과 가족, 교인들, ITA/ATI 회장(Aaron Park 목사), 학장(Michael Ahn 교수), 프랑스 교단 및 아프리카 교단에서 초청받은 여러 목회자들까지 모두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졸업식을 가졌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파리에서 아프리카 및 인도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3명의 졸업생을 첫 열매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비전이 현실로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졸업생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하여 프랑스에 새 교회가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한다. 앞으로 매년 신학교육을 받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교육공간과 사역 현장이 불어권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사역하길 원하는 한인 및 현지 선교지망생·교인·은퇴 후 의미 있는 선교의 삶을 원하는 실버미션 선교사에게 좋은 훈련과 경험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위 디 국 제 선 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디아스포라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KWMA 사무총장

글

강대홍 선교사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월간 발행지, Diaspora Newspaper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써 전 세계 교회 중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신문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그동안 이주민 선교사, 선교단체, 지역교회를 아우르고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관련 전문 정보와 소식의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였습니다. 지난 열두 번 발행의 매 지면을 16면의 방대한 분량으로 채웠을 뿐 아니라 이주민 분야의 전문 기고를 통하여 새로운 선교 운동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다가오는 시대의 새로운 선교 방향입니다. 현재의 이주민 통계를 토대로,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300만 이주민 사회가 되리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2050년도에는 이주민이 국내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가는 선교'에서 '들어오는 자를 위한 선교'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 입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이 미전도 종족이 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종족이라 생각하고 이들에게 선교하는 일을 계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알아 환대하고 그들의 문화·종교·언어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 디아스포라신문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신문〉발행을 위해 애쓴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국내외의 모든 디아스포라와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주민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디아스포라신문은 주어진 사명 붙잡고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Chair, Lausanne Diaspora

글

Dr. T.V. Thomas

일을 시작하는 첫해에는 대개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선구적인 벤처 사역은 비전 공유, 모집, 조정, 컨설팅, 자금 조달, 마케팅, 출판 및 유통을 요구합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지난 1년의 과정 가운데 모든 위험부담을 돌파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도들에게 이주민 선교사역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창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구독자가 늘어가고 실제적인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디아스포라신문은 2년째의 사역을 향하여 더욱 힘찬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신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큼니다.

- 지구촌에는 1년 전보다 더 많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중에서도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국적 기업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더 많은 난민과 망명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등록 외국인의 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수많은 국제 유학생들이 그들의 교육적 목표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동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동원되어 디아스포라 이주민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물을 주고, 연합하여 풍성하게 거두도록 디아스포라신문이 계속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로잔 위원장
국제 기아대책 총재 역임

글

Dr. Tetsunao Yamamori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를 대표하여 디아스포라신문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로잔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 선교학(Scattered and Gathered)〉출판 때 느꼈던 큰 기쁨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이 일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아스포라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디아스포라신문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아스포라신문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해나가면서, 신문을 읽는 독자분들도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복음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와 파트너십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국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섬기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위임령을 이행할 수 있기를(마 28:19~20) 바랍니다!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설립 이사장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대표 Dr. Ted Yamamori
부대표 문창선 목사(위디국제선교회),
Dr. Tereso Casino(가드너웨이 선교학 교수)
국제자문위원회장 신화석 목사(AWMJ)
자문위원 마이클 오(로잔운동), 에프라임 텐데로(WEA), 다이넬 보다네(전 IFES), 송민호 목사(토론토 영락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정숙 교수(헛볼트리니티), 이해훈 교수(전 UCLA 경제학 교수), 김동화 목사(GMF), 이시형 장로(전 유엔대사), 김영국 목사(전 투르크 방송)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이재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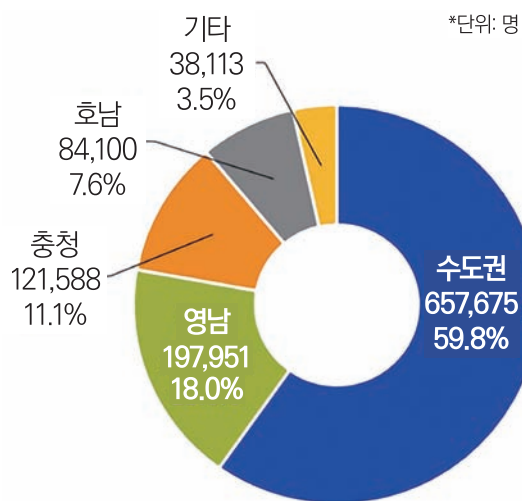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4월호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1,987,250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099,427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481,270명, 단기체류외국인은 406,55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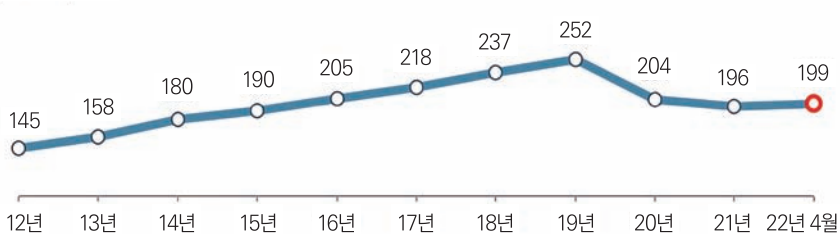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41.9%(831,805명), 베트남 10.4%(206,518명), 태국 8.7%(171,962명), 미국

7.7%(153,529명), 우즈베키스탄 3.4%(67,159명) 등의 순이다. 등록외국인(1,099,427명)은 권역별로 수도권에 657,675명(59.8%)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197,951명(18.0%), 충청권 121,588명(11.1%), 호남권 84,100명(7.6%)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단위: 만 명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외국인등록: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기브온 주민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피아선신학전문대학원장

글

유윤종 교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원칙은 '진멸'(히브리어, ḥērem)이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신 7:1~5)였으며, 멀리 있는 성읍들에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었다(신 20:10~18). 기브온 주민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한 부족이었다. 그들은 진멸을 면하기 위하여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주민인 것을 모른 채 진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약속한 언약을 되돌릴 수 없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다(수 9:27). 기브온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부지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수 10장).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성경은 그날의 승리에 대하여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수 10:13)라고 증언한다.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대기, 에스라-느헤미야에는 주전 539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느디님"

사람이 나온다(대상 9:2; 스 2:43~54; 느 7:46~56). 이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나온다.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나탄'(nātan, '주다'라는 의미)의 수동형태로 '주어진'(헌신된)을 의미한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 9:27에서 '삼았다'라고 번역되었다. 에스라 8:20에서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nātan) 느디님 사람"으로 나온다. 따라서 느디님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속이면서 언약을 체결한 후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길는 자로 살았던 기브온 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후에 유다 사회에 동화되어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느디님)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도 이름이 나온다. 레위인을 도와 성전 일을 맡은 자로 당당히 포로 후기 유다 사회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노동력을 제공해 우리 사회에서 "나무 패며 물 길는" 일을 감당하는 "느디님(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은 유대인의 정체성보다는 기브온 사람, 느디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원래 기브온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느디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웅,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에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구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관

모퉁이돌선교회 제65회 선교컨퍼런스...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7월 5일부터 8일까지 곤지암 소망수양관서 개최



북한선교 전문단체인 모퉁이돌선교회가 2년 만에 대면으로 여름 선교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제65회 컨퍼런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주제로 열린다.

지난 37년간 북한선교를 감당해 온 모퉁이돌선교회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 되면 선교컨퍼런스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최근 2년은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만 열다가, 올해 다시 오프라인 대면 모임으로 준비됐다.

모퉁이돌선교회는 “이번 선교컨퍼런스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받고 온유함으로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을 여러 시각으로 연구해 온 강동원 동아대학교 교수(동아대학교 하나센터장, 정치학 박사)가 오늘의 북한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망원렌즈로 보는 오늘의 북한’에 대한 강의를 전한다. 또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탈북민 김명숙 목사(산정현교회 담임)는 간증을 통해 탈북민 사역과 북한선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됨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마가 목사(모퉁이돌선교회 PIBC 담당, 선교학 박사 과정 중)는 ‘탈북민, 이주민, 다가온 선교현장’에 대한 강의에서 한국에 이주해 온 탈북민, 조선족, 한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켜 하나님의 때에 북한, 중국, 소수민족 사역자로 나아가게 하는 성경적 배경과 전략, 실제 사역을 나눈다. 중국 주재 선교사로 협력하다가 현재 미

국 선교기관에서 북한을 비롯한 열방의 선교 동원을 주도하는 미국인 가브리엘 선교사(차이나 하베스트 선교회 대표)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강의를 통해 펜데믹 이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익한 종’으로 살기를 평생 꿈꾸며 37년간 북한선교를 감당해 온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 대표)는 3일 동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었느냐?’, ‘순종하였느냐?’, ‘동족을 향한 끊임없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와 함께 이반석 목사(모퉁이돌선교회 총무, 선교학 박사, ‘북한지하교회 순교사’ 저자)는 ‘북한선교,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는 강의를 통해 참담

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북한 성도들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모퉁이돌선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 지하교회 사역 상황을 나누고 기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모퉁이돌 사역자들이 북한의 여러 상황과 사안을 대담 형식으로 나누는 모퉁이돌 OKCN 앱 방송 내용을 듣고 기도하고, 모퉁이돌 간사들이 컨퍼런스 기간 다뤄진 여러 사안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토론 시간도 준비됐다. 아침마다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 미디어 사역팀장)는 성경공부를 통해 북한 땅과 북한의 지하성도들을 우리의 유업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저녁 시간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진정한 개인의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와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장단기 현장 사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소개받고 공개 가능한 사역지를 직접 방문하는 워크숍과 매주 목요일 녹음하여 북한으로 송출하는 남북연합 예배도 열린다. 같은 기간에는 선교컨퍼런스에 참여한 부모들과 동행한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가 진행된다. 어린이 캠프는 6~7세, 초등학교 1~6학년 프로그램이 별도로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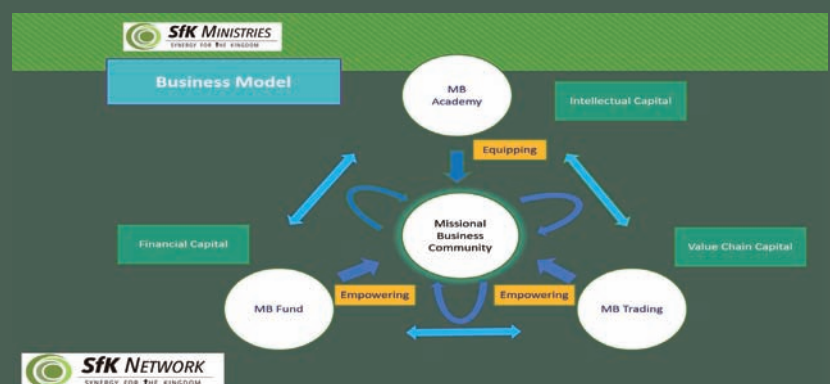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특히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모퉁이돌 선교컨퍼런스 담당자에게 문의(02-796-8846)하면 된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소망을 그리는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화가

▼하니프 씨의 그림 <물 길는 남자>

서울에서 화실을 운영하는 하니프 씨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화가이다. 그의 그림에는 평화와 소망이 담겨있다. 하니프 씨는 자신의 고향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걱정을 늘 품고 살아간다. 탈레반에 의한 인권 유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동포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하니프 씨는 자신만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럴 때마다 하니프 씨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한다. 하니프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크리스천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말해 달라.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종교과목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종교가 현실에 도움이나 평안을 주기보다, 너무 일방적이고 어려운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눈을 깜빡이는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이 알라의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예정론을 중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의구심이 들어 주변 어른에게 질문을 하면 답 대신 배교자라는 소리와 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게 종교란 거부감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고, 저의 마음은 계속 공허하였습니다.

그러다 내전이 발생하여 파키스탄으로 피하게 되었는데, 난민이 된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몇 번이나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약 20번 이상을 이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온 선교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뜻 모를 감동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

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웃들을 측은히 여기게 되었고, 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배경의 국제 NGO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배우고 신앙에 관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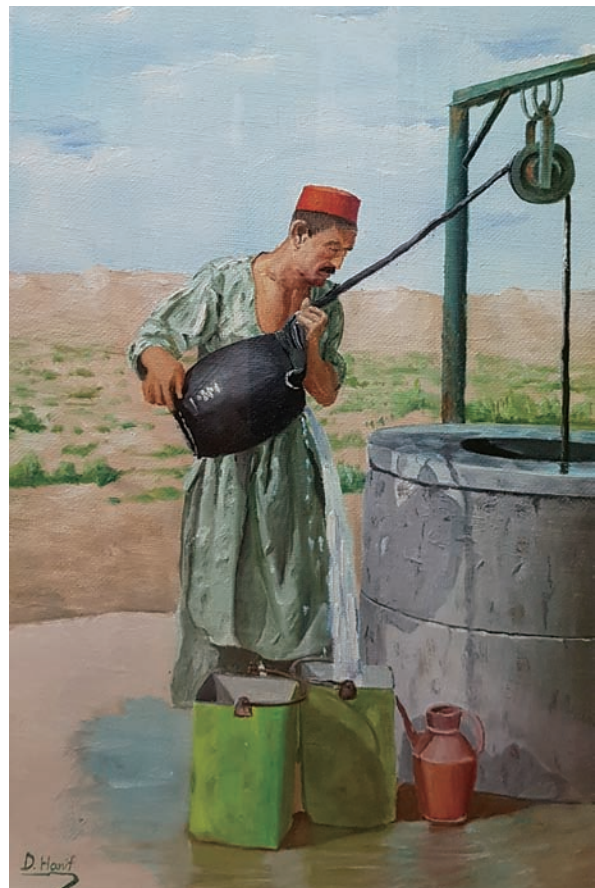
신앙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지인 가족 중 어느 임신부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배 속 아이가 거꾸로 있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모를 큰 병원으로 데려갈 차를 속절없이 기다리며, 저희 가족도 지인들 옆에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한인 선교사들(나중에 안 사실이었습니다) 몇 분이 임신부 옆에 서서 소리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였는데, 끔찍했던 임신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걸까 놀랐지만, 임신부는 고통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건강히 순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대학 중퇴 후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NGO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에게 전달받은 다리어로 된 신약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기쁨이 넘쳤고, 그때 작지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NGO에서 일을 하다가 아쉽게도 2007년 피랍사건 이후 모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를 계기로 알게 된 분과 2008년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나의 최고의 롤모델이자 신앙의 멘토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머물던 초창기, 어릴 적부터 앓았던 중이염이 심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도 금전적 여유도 없어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제 가슴은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서울 동신교회의 이란 모임에 출석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신약성경만 읽었는데, 동신교회에서 제공한 구약성경을 읽으며 제 신앙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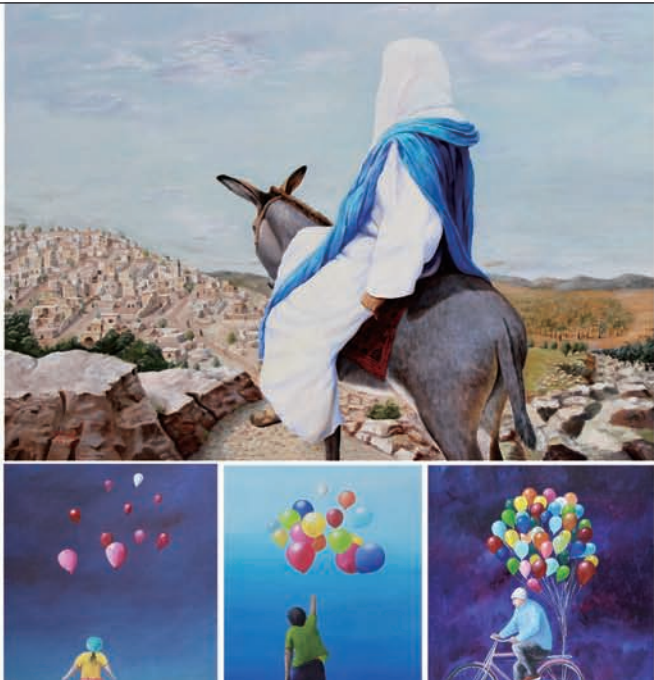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문이 닫힌 우리 안에 양들이 갇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자 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돌아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도 너무 달랐고, 음식, 날씨 등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향수병으로 인해 불쑥불쑥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체류가 걸린 비자 문제였습니다. 이주 초창기에 3개월의 단기간 비자를 지속적으로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일을 하며 저를 지원하고, 비자 문제로 불안정한 삶을 살다 보니 3번의 유산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부분입니다. 저의 비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기간으로 연장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

David Hanif
Solo Exhibition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테러로 몸살을 앓는 곳, 그러나 그곳에는 따뜻한 웃음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사계절과 경이 있으나 가려진 나라, 평화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제 마음속에 간직한 조국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소망하며 그림을 통해 그 마음을 담아 봅니다.

Pray for Peace of Afghanistan!

일시 : 2022. 7. 23(토) ~ 8. 5(금)

장소 : 안양 새중앙교회 로댐 갤러리

데이비드 하니프 DAVID HANIF



현 A-art 대표
현 한국미술선교회 회원
현 법무부 위촉 사회통합멘토로 활동
개인전, 단체전, 초대전 다수
목우공모미술대전, 기독교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등 다수 공모전 입선
동신교회 출석

려주셨습니다. 지금도 2년씩 비자를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분의 날개 아래 사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게 마음을 전해달라.

먼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기독교 단체의 섬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정착지에서 늘 불안을 느끼고, 자그마한 일에도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하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과 한국적 요구에 유연한 수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분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노포비아를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립으로 이루어지고 행복한 정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실을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다.

제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면서 아내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경호 화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림을 사랑해서 그리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미술대전에서 여러 번 입상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 화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아껴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의 내조와 기도 덕분입니다. 아내에게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수강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기회도 있었고, 현재는 화실을 열어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개인

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화실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그림에는 성경의 내용, 예수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아프가니스탄의 풍경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림을 본 많은 분들은 제 그림이 따뜻하고 소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기원하며 "Pray for peace of Afghanistan"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시할 그림은 풍선을 든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화를 소망하는 동심과 희망을 풍선에 담았습니다. 전시회는 7월 23일~8월 5일에 안양 새중앙교회 로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많이 찾아와주셔서 그림에 담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희망을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을 알려달라.

저는 지금도 고향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어린이와 여성의 삶이 제대로 보장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강력한 요구와 적용은 사람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저희 가족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또한 조카들의 미래가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저의 작은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부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프 씨 부부는 오늘도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섬김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정리 문창선)



손수 그린 벽화 앞의 하니프 씨와 아내 허정훈 씨.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왜 디아스포라신문은 발행되어야 하는가

본지 고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목사



황덕영 목사

2021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는 '디아스포라 신문'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기적절한 전략이었고, 그 목적도 분명했다. 창간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독자와 이주민의 관심 및 국내외 선교사의 참여로 신문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디아스포라신문은 더욱 선하게 평가될 것이다. 나는 발행고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디아스포라 신문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디아스포라신문은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과 해외로 진출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유용한 플랫폼이다. 어떤 의미에서, '뉴스'는 곧 '목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이민자, 이주민, 떠도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없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신문은 시의적절하게 등장하여 이주민의 생각, 문제, 삶의 열망을 가시화하는 메가폰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플랫폼이 없다면 수용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도심의 이주민은 유사시 정부기관과 NGO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변두리의 이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주 노동자를 수용하는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체와 공장이 외곽 지역에 있고, 그곳에는 관련 선교사의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2021년 디아스포라신문이 발행되면서, 원

격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둘째, 디아스포라신문은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봉사 부처, 교회, 그리고 선교기관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도구이자 디지털 허브를 제공한다. 도시 중심부의 이주민은 접근성으로 인해 인력, 자원 및 네트워킹에 있어 비교적 유리하다. 그러나 서울, 인천,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농업과 어업 분야의 이주민은 선교 지도자와의 접촉조차 적을지도 모른다.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과 그에 상응하는 제자훈련 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하지만 공간과 지역을 초월하는 SNS와 인터넷 기술을 통해 디아스포라신문은 전국에 걸쳐 더 많은 이주민에게 도달하고 그 격차를 좁히고자 노력한다.

셋째,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 △이민 △디아스포라 선교 △이주민 정책 △이주민의 정신 건강 및 대처 메커니즘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문화·사회 경제·정치적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과 지도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수 세기 동안

우리는 단일 문화를 보존해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등 현대사회는 새롭게 변모해갔다.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체성이 오늘날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선교사와

에 대해 접근성이 낮다. 안타깝게도, 선교학자들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의견들은 대중이나 "신학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에 의해 읽히지 않고, 도서관의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신문을 거친다면 이러한 강력한 선교 아이디어가 많은 이들에게 쉬운 언어로 제시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부 선교사들은 깊은 학문적 통찰력 없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실용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주민 선교관련 정보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고, 활동가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억압한다. 또한 선교학자들의 지식의 범위를 제한한다.

두 극단의 문제를 인지한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는 2021년부터 디아스포라신문을 매월 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구상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과 디아스포라 그룹 가운데 선교사와 사역자가 모여 개방적이고 변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신문은 이론과 실제 사이를 연결하는 전략적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신문의 비전이다. 디아스포라신문의 창간 첫해를 축하하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활동가에게 연구지식, 전문가 조언, 관련 경험, 좋은 실행가들이 함께하는 포럼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두 가지의 이유로 중요하다. 먼저, 일부 선교학자들이 실존적 현실과 씨름하는 이주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은 뒤로한 채, 학문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학에 관한 뛰어난 에세이는 학술지에 실리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학술적 저작



위 디 국 제 선 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새로운
시대의 선교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MissionNaga2022

To teach, share with and challenge the Asian Young Adult Students in order that they might experience spiritual awakening and rise up to the call of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generation. MissionNaga Movement will be held every two years and will be regarded as foundation stone of world missions for the Asian Church.

Aug. 8th-11th 2022

Hybrid Program as ON, OFF at Eastern Bible College
Registration Link : <http://tinyurl.com/MissionNaga>

Title MissionNaga2022 the 8th Youth Mission Movement

Date Aug. 8th-11th 2022

Cohosts WiThee International

AEA Mission Commission

AEA Youth Commission

KCCN

Theme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Venue Eastern Bible College

Contact +91-8147718060, iset.ecc@gmail.com

New Normal 2022
MissionNaga

국제이주자선교포럼 개최... "MZ Life행전이 펼쳐지길"

이해동 목사 "MZ세대를 이해하고 이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키워야"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 대표 박찬식 소장)이 지난 6월 27일 CTS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현장 참여자 150여 명과 온라인 접속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황인권 대표(인권앰파트너스)는 한국과 전 세계적 MZ세대의 상황과 이들 가운데 남겨진 복음의 씨앗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에 유정민 목사(Onebody Community)는 "MZ세대도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추구가 분명히 존재하며, 진실한 공동체는 복음을 수용하고 심화할 씨앗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공간대여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정수현 대표는 MZ세대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성경말씀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조성민 목사(313Church)는 청년목사의 교회 개척 스토리를 나누었다. 이어서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기, 소명으로 고민하는 중국인 전도사, 몽골인의 꿈, 우크라이나 자매가 이단에 빠질 뻔한 사건, 한국식당 개업을 위해 식품영양을 배우는 미얀마 자매의 꿈, 캄보디아 노동자가 목사님이 된 이야기 등 다채로운 이주민행전이 포럼에서 소개되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관한 총무단 소속 이해동 목사(몽골네트워크 대표)는 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에 오는 이주민 중에서 '10대 후반과 20대 청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은 가치관의 변화가 어렵지만, 청년에게는 힘과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내적 변화를 통해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어디에서든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의 이주민 사역과는 다르게 새로운 변화가 젊은이들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시대적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주민의 옷차림과 화장법을 보고 누가 한국인인지 또는 누가 중국인이고 몽골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초기 무조건 교회를 거쳐서 한국사회에 진입하는 문화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교 캠퍼스 안 학생들이 누가 한국인이고 외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eauty와 K-Fashion 등 한류로 멋을 낸 외국 대학생들이 출현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한국의 대학교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를 요구하면서 TOPIK 3급은 학부, 4급은 대학원, 5급과 6급은 장학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급과 6급의 실력에 도달하려면 한국체류 5년 이상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04년생 18세 청년이 한국에 입학하기도 전에 TOPIK 6급을 먼저 취득하고, 어학당을 생략하여 대학교를 곧바로 입학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청한 K-POP, K-DRAMA, 보로로 같은 프로그램 등의 영향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민족정체성의 변화양상입니다. 2000년대의 재한 이주민은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민족정체성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출생 대학생들은 민족정체성이 약해지고 세계인 정체성을 장착

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K-Contents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향상되어 한국청년들이나 이주민청년들이나 MZ세대의 생활양식에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역에 시사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MZ세대만의 MEGA TREND 속에서, 한국과 전 세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탄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MZ세대를 잘 이해하고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남겨놓으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씨앗'(칼빈이 이야기한 마음에 남겨진 종교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주민 청년들의 이주민행전, 한국청년들의 MZ Life행전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본 포럼은 지금까지 국내외 이주민 선교 콘텐츠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왔으며, 이주민 선교 관련 전문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 박찬식 소장은 2023 포럼부터는 다음세대 콘텐츠에 무게를 싣고 이주민 선교의 확대에 일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


To-Plate

천혜지역 호주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디아스포라신문 1주년 기념에 부쳐...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미디어 속 선정성과 자본의 탐욕이 그 본질처럼 퍼져가는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에 역행하는 듯 낮은 자, 숨은 자, 주변인 같은 이주민의 실상을 공유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 나아가 이주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선교적 노력을 다했던 디아스포라신문의 그 여정은 1년 전이 아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비전 속에 꿈꾸어진 일의 실행일지도 모른다.

초기 한국선교가 해외로만 눈을 돌리던 때, 국내에서는 아주 적은 무리의 사역자들이 당시 투명인간처럼 살던 필리핀,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일을 시작했다. 신문의 발행인인 문창선 목사도 묵묵히 그 일을 실천해왔고, 유럽에서 같은 여정을 걷던 나는 디아스포라들과 성경을 번역하다가 디아스포라 포럼을 통해 문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난민과 이주민을 주제로 한 3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국내 이슈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한 예로, 지난 2016~2018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국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내국인들이 난민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특히 한국교회 성도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친절히 보살피는 실천적 태도를 갖도록 돕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이주민 관리 체계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의 몰이해와 이주민 차별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소명으로 디아스포라신문은 이주민 이슈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맡았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공적 나팔수'의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여러 사역을 전개해 나가면서 디아스포라신문이 추구해야 할 몇 가지 선교적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본지가 선교신학적 기초에 충실한 신문이 되길 바란다. 가톨릭 신학자 다니엘 그루디(Daniel Groody)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중요한 통찰을 준다. 먼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이미지(Imago De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성육신하신 말씀(Verbum Dei)인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즉 한 몸의 연합과 용서가 이주민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Mission Dei)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Visio Dei)이 국경의 구분 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디아스포라신문이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길 바란다.

디아스포라신문이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방향으로, 다가오는 4차 로잔대회 한국 개최를 앞두고 본지가 국제복음주의운동에 대해 성찰하고 글로벌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는 신문이 되길 기대한다. 그동안 로잔운동은 태생적으로 복음 전파에만 경도되어 문화적 대위임령인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신문은 복음의 총체성을 드러내고 선도하는 지면이 되길 바란다. 서구 위주였던 로잔운동이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주도하는 '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한국교회가 기여하도록, 본지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로잔의 신학 분과장을 맡았던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는 그가 초안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교회 및 선교지도자는 세계적인 이주현실 속에서 선교적 기회를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역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자원을 제공하여 그 교회에 반응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선교현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20세기에 서구 기독교가 주도한 소위 '제국주의 선교'의 부정적 열매들, 그리고 1972년 케냐에서 일어난 선교모라토리엄은 우리에게 많은 성찰을 요구한다. 선교역사가 라민 사넬(Lamin Sanneh)에 의하면, 식민정책이 철폐된 1960년대 이후 자국어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스스로 각성하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외부자의 영향으로 인해 내부자가 자립구도를 세울 수 없

었던 상황이 전환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선교계 내부에서도 많은 반성과 성찰이 일어났는데, 특히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미션 분과 대표인 제이 마텡가(Jay Matenga)는 현지인 스스로가 복음을 담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조력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돕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내부자들이 스스로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하는 선교는 "한 창조주를 통해 주어진 모든 전통과 문화(앤드류 윌스, 2008)" 속에서 배태된다는 전제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믿음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조화로운 문화를 드러내는 방식의 선교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이 다문화론을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계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네 번째 방향으로, 교회가 본질이 되는 선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가 되길 기대한다. 최근 조금씩 한국 교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서구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적 진실이 현대과학 사회의 하부구조가 되는 것을 용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교회가 "혼합주의의 발전된 전형(an advanced case of syncretism)"이며, 교회가 두 개의 다른 세계관(세상과 기독교)이 혼용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여 타락한 서구 문화에 선교적 도전을 주는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성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이 한국 교회와 한국 내 다민족, 다문화 교회, 더 나아가 관용의 차원에서 타종교까지 품는 성숙한 선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차 로잔대회의 중요한 기치였던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자'라는 표어를 기억하고 있다. 이 선교의 마지막 세대로 평가되는 21세기에 교회는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써 '선교적 영성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유대공동체도 '회당'이라는 구조와 선교적인 구조인 '케브라'(Khebra)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한 몸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렇듯 교회(모달리티)와 선교단체(소달리티)가 유기적으로 연합한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소달리티는 교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 조슈아 스테이트 함(Joshua Stateham)은 이에 대해, "소달리티는 오랫동안 지역

교회로부터 오인되거나 불신과 거절을 당해왔다. 지역교회가 소달리티를 파라처치(Para-church)라고 할 때, 심리적으 의식하는 못하든 간에, 이는 우리와 타인(us vs them)의 구도를 강화해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연합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선교 신학자 랄프 윈터(Ralph D. Winter)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구조이다. 모달리티로써 교회가 선교사역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두 구조가 각각 다르게 사역하지만 소달리티의 선교 역시 교회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오히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사이에 건강한 긴장이 유지되어 소달리티로 인해 모달리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교와 이방인의 관계, 로마와 켈트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감리교의 탄생, 근대 선교운동 등이 모두 건강한 긴장을 통해 생성되었다는 패턴을 목격할 수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한 몸처럼 엮일 수 있도록, 총체적 난국을 마주한 기독교의 현실을 바르게 선도하고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디아스포라신문이 본질을 추구하는 정론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김성훈 선교사의 책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는 '반추하는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의 사역기록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전체 14개의 주제로 전개되며, 전문지식이 녹아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한다. 1장부터 4장은 디아스포라 현상과 이를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대표 주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앞으로 가야 할 선교의 방향을 설명하며 현장사역자·학자·선교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정리한다.

5장은 지난 3차에 걸친 로잔 복음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서구 중심 운동의 한계와 글로벌 교회의 약진으로 인해 확산된 디아스포라 교회운동을 로잔이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흐름에 편승하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6장부터 9장은 현재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그룹 이슈를 사안별로 분석한다. 특히 초기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그룹의 활동과 한계,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난민과 이주자를 수용한 독일의 난민 정책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4장까지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담겨있다. 10장은 개신교 선교가 깊이 반추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자 중심의 선교(Missio Inter Gentes)에 대해 설명한다. 지금까지 종족을 타겟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선교였던 기존 선교의 폐해에 대해서 저자는 환기를 요청하고 있다.

11장에는 로잔운동이 지향하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자"라는 모토를 되새기며 다원화되고 있는 선교현실을 직시한다. 또한 복음의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지평으로 대두되는 중앙아시아 한민족의 선교 자원화 방안을 소개한다. 12장은 그동안 세계선교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소달리티 선교구조와 파송 주체인 모달리티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담아낸다. 이에 대표적 예인 위클리프 국제선교단체의 변화를 소개하고,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두 조직의 조화로운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13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바른 적용을 통한 교회의 본질 회복을 다룬다. 14장은 이란의 남 아제리 성경번역 사역을 소개하며, 디아스포라 사역이 어떻게 미래 선교에 중요한 대안인지를 번역사역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18: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한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kwangsung.org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H**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울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53-756-1701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아시아청년
신교동원운동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Aug. 8th-11th 2022

Hybrid Program as ON, OFF at Eastern Bible College
Registration Link : <http://tinyurl.com/MissionNaga>

MissionNaga2022
To teach, share with and challenge the Asian Young Adult Students in order that they might experience spiritual awakening and rise up to the call of world evangelization in their generation, MissionNaga Movement will be held every two years and will be regarded as foundation stone of world missions for the Asian Church.

Title MissionNaga2022 the 8th Youth Mission Movement
Date Aug. 8th-11th 2022
Co-hosts WiThee International
AEA Mission Commission
AEA Youth Commission
KCCN
Theme Missional Strategies for the New Normal
Venue Eastern Bible College
Contact +91-8147718060, iset.ecc@gmail.com

New Normal
MissionNaga 2022

▲ 아시아청년 선교동원 운동(아시아복음주의연맹과 위대국제선교회 주관, 북동부인디아 나가랜드)



Join us in
Cape Town

Dear Friends,

You are invited to join us at the Cape Town Diaspora Consultation, August 23 - 27, 2022.

Theme: Afric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frica

PLENARY SPEAKERS:

Rev. Dr. Frank Chikane is International President and Pastor of the Apostolic Faith Mission. He has been a leading cleric and human right campaigner and is base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Prof Gerald John Pillay, OBE DL FRSA is a South African theologian and ecclesiastical historian. He has been Vice Chancellor and Rector of Liverpool Hope University in the UK since 2003.

Dr. Jehu J Hanciles is Professor of World Christianity at Candler School of Theology, Emory University. Originally from Sierra Leone, studied in Scotland, and now lives in Atlanta, USA.

Plus 15 paper presentations and much more!

Registration Link: www.global-diaspora.com/events/capetowndiaspora

Pray with us as we move forward with HOPE!

GLOBAL DIASPORA NETWORK
VISIT: www.global-diaspora.com

T.V. Thomas
Chairman, GDN

▲ 로잔 디아스포라 GDN주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컨설팅(케이프타운, 8월 22일~28일)



▲ 채희석 목사와 '불어권 아프리카 목회자 신학교' 파리 캠퍼스 졸업생들(4면 참조)

▼ 아프가니스탄 이주민 화가 하니프 씨의 그림(8·9면 참조)



▲ 제15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 11면 참조)

▼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교육포럼(신상록 목사)



▼ KWMC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